오늘의 복음

“하나님의 일에 감사”

(마태복음 28:18-20)

■ 들어가는 말

이번 주일은 온양삼일교회 설립 59주년 주일입니다.
그동안 행복하고 감사했던 교회생활의 기억을 나누어봅시다.

■ 말씀 속으로 - 들어가 봅시다. (마태복음 28:18-20)

18. 예수께서 나아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19.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1.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누구의 것입니까?

=> (18절)예수께서 나아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2.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명하신 대위임명령은 무엇입니까?

=> (19절)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절)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3. 우리가 하나님의 일, 즉 대위임명령을 감당할 수 있는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 (20절)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4. 하나님께서 대위임명령에 우리들을 부르시고 함께 그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이고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와 함께 그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실까요?

=>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놀라운 계획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마치 가장 중요한 순간을 가장 소중한 사람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것과 같습니다. 홀로 그 일을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그 일을 이뤄가기를 원하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온양삼일교회가 59년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쓰임 받고 앞으로도 쓰임 받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하며,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5. 예수님의 대위임명령을 통해서 온양삼일교회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 각자 돌아가면서 나누어 보겠습니다.

■ 기 도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에게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한 사명자로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온양삼일교회를 통해서 59년간 역사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시며 맡겨 주신 놀라운 사명에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온양삼일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초 청 합 니 다

참 좋은 교회가 있습니다.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이,
상처가 있는 곳에 위로가,
절망하는 이에게 희망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기 그분을 만날 수 있도록
잘 인도하는 참 좋은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온양삼일교회입니다.

“온양삼일교회”는 당신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당신에게는 누군가로부터 칭찬을 받을만한 아름다운 삶(신앙)의 이야기가 있나요? 이번 기회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아름다운 삶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